화엄사 주지후보 덕문 스님 당선

161표 중 100표 얻어, 영관 스님 56표 그쳐



박빙일 것으로 예상됐던 구례 화엄사 주지후보 선거서 덕문 스님〈사진〉이 큰 표차로 영관 스님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화엄사는 3월 22일 경내 화엄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덕문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선거인단 178명 중 161명이 투표한 선거서 덕문 스님은 100표를 얻었다. 영관 스님 56표, 무효 5표.

덕문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시대가 변해 많은 문도스님들이 변화를 갈망하는 것 같다. 앞으로 승려복지문제와 농촌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겠다"면서 "앞으로 산중문제는 대중공의를 모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화엄사 발전을 위해 4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날 당선증을 받고 5월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덕문 스님은 이례적으로 종책자료집 제작해 △교구 원융화합 △본말사 상생실현 △노후 수행환경 마련 △세대 · 지역별 포교전략 수립 △불교문화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행문화공동체 실현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출가에서 열반까지 교구에서 책임지겠다'는 복지종책은 노후 수행거주도량 조성하고, 중증질환 치료비를 본사서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다비장인 연화장의 규모를 확대해 모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5년과 1990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화엄사 재정국장, 제13~15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 대구 동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감사를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흥룡사 채무 변제 긍정적, 특위 해산키로

봉선사, 2020년까지 교구차원 특별기금 배정

막대한 채무로 인한 강제경매 위기에 처했던 포천 흥룡사가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어려움을 벗어난 데 이어 교구차원 노력 덕분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덕조)'는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진행경과 보고를 받고 위원회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흥룡사 본사인 봉선사 재무국장 법일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2015~2020년까지 공찰과 사설사암을 비롯한 총 82개 말사에 약 19억2500만원을 특별분담금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기채현황은 3차례 총 16억2700만원이며, 현재까지 3억5000만원을 상환한 상태다.

또한 20여 건에 달했던 각종 소송이 대부분 종료돼 3건의 소송만 남았고, 신규소송이 없는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흥룡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흥룡사 관련 소송사건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흥룡사와 ㈜대유개발 · 세옹주택 · 진산레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정판결에 따른 흥룡사측 변제금원은 약 4억5900만원이었지만 당시 소임자 부주의로 변제하지 않아 2015년 강제경매 절차가 예고됐다. 이는 1980년대 흥룡사 주변이 '백운계곡관광지'로 지정되면서 흥룡사 주지 스님과 개발업자들이 종단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개발 주체가 변경되고, 채권이 양수되는 등 복잡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구체적 현황 파악도 최근에야 이뤄졌다. 다행히 흥룡사는 2016년 10월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토지강제 경매 문제가 해소됐다.

이날 회의서 특위 위원들은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중이 잘 화합해서 진행한 결과 원만하게 마무리돼가는 듯하다"며 25교구의 단합된 노력을 치하했다. 다만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므로 본사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쉽게 세부적인 경과를 정리해줄 것을 봉선사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특위는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25교구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구에 부담되지 않도록 중앙종회 본회의에 특위 해산의 건을 발의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창업선포

3년 내 보유자본 50억 · 총매출 300억원 목표

2022년까지 3단계 추진전략
디자인사업 · 유통사업부 조직
종단 기여 15억원까지 확대
자승 스님 "복지 책임져주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열린 도반HC 창업선포식. 대표이사 자승 스님이 종단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계종단 재정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전개할 사업지주회사 '도반HC(Holding Company)'가 공식 창업선포를 했다.

㈜도반HC(사장 김용환)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창업 선포식 및 사옥 개소식'을 거행하고, 창업 3년 내에 보유자본 50억원 · 총매출 300억원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을 천명했다.

도반HC는 '종단 재정 확충과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운영된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종단역량에 따른 대사회 경제활동 기반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반HC는 △1단계-불자 경제생활공동체 구축 · 종단 신규경제 기반 확장(~2020년) △2단계-종단 재정확보 본격 추진 · 대사회 경제활동 본격화(2020~2022년) △3단계-종단 재정안정화 기여 · 대사회 경제활동 모델 정착(2022~)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구체적 사업방향으로 기존 사업분야 체계 및 역량을 재정비했다. 도서출판 · 총판 · 전문서점을 출판사업부로 통합하고, 디자인사업부를 신설했다. 또 유통사업부를 재설치해 중앙종무기관 · 교구 · 사찰 신규 재정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종단 내부자원을 조직화해 신행생활 필요물품을 제작 · 보급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를 조직화하면서 불교계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향후에는 일반기업과의 OEM · 매칭 · 런칭 등 연계사업과 불교계 특유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펀딩을 통해 영화 · 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 사업도 모색한다.

도반HC는 △도서출판 도소매업 △기획물 제작 및 대행업 △미디어사업 △오디오 제작 판매업 △행사기획 △유통사업 △프랜차이즈사업 △집합투자 및 투자중개 △부동산 중개 및 임대 △전자상거래 등 10가지 분야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3년 내 현재 5억원 규모의 순익을 30억원으로 높이고 4~5개의 직접사업을 운영하며, 분야별 자회사를 10개 이상 갖춘다는 목표다. 3억원 내외인 종단기여 역시 15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표이사 자승 스님은 선포식에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자 종단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반석"이라며 "도반HC는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종단의 튼튼한 버팀목이자 모두에게 선선한 그늘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치하했다. 특히 스님은 이어진 사옥 개소식에서 임직원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승가복지를 책임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반HC 출범으로 관련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조계종 사업부 관계자는 "10개 사업 중 절반이 기존 사업인데다 프랜차이즈 · 집합투자 등은 영세업자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 및 임대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역할이 아니라 종단 소유 토지를 활용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규모보다 대규모사업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반HC는 서울 견지동 두산위브파빌리온 B230~232호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02-733-6390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계 '기본소득' 논의 시작
"모든 스님에 월 50만원씩"

유승무 교수, 녹색불교포럼서 '기본소득제 시론' 발표



불교계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스님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키 위한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확립해야한단 주장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사진〉는 3월 20일 불교환경연대가 주최한 제4회 녹색불교포럼 '기본소득과 불교'서 '승가형 기본소득제 시론(試論)'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 교수는 이날 탁발제도가 철폐된 한국불교서 이를 대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승가형 기본소득제 '기초 수행지원 보시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승가의 '흑수저'에겐 생존의 요구가 더 시급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또 비구계를 받은 후엔 각종 기능적 업무에 시달리며 반야의 꿈은 물론 그 꿈을 꾼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라며 "이러한 사태는 삼보정재의 사유화 경향, 승가불평등 심화 및 일부 출가자의 빈곤, 출가자 감소, 세속화 및 사사화 경향, 각종 범계 발생, 신도 수 감소 등 악순환 고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불교의 폐단을 승가형 기본소득 보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초 수행지원 보시금'에 따라 모든 출가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단 출가자수를 1만 명으로 가정하고 약 600억의 예산을 산정했다.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사찰 점유비'를 세금 형식으로 걷을 것 △직영사찰 종수입 약 760억 중 25%이상 확보 △전국 모든 사찰 종무소에 '기초 수행지원 보시함(또는 승보공양 복전함)' 설치 △관광사찰 입장료의 정당성 근거로 '문화재관람' 항목 외에 '기초수행지원금' 항목 설정, 관광사찰 입장료 일부를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편입 △일부 출가자의 재보시 등을 제안했다.

유 교수의 주장은 승가복지와 관련 불교계서 첫 논의되는 기본소득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출가자 수 증감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 청빈의 삶을 표방하는 승가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이 적합한지 여부, 승가형 기본소득제가 △삼보정재 사유화 △승가불평등 △출가자 감소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은 과제로 남았다.

박아름 기자

BBS제주FM 개국 허가
'전국 법음포교' 착수

방송통신위 3월 21일 최종 허가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3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BBS제주FM 방송국 개국을 허가받았다.

이에 BBS불교방송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 즈음 주파수 94.9MHz, 출력 1KW로 개국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불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BBS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개국해 부산,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 등 주요지역에 지방국을 설립한 한편, 인천, 창원, 진주, 광양, 포항, 안동, 속초, 양양, 강릉, 대관령 등에 중계소를 설치한 바 있다.

BBS불교방송 측은 "제주도엔 이웃종교 방송국은 있었지만 BBS불교방송은 개국되지 않아 부처님 법음과 불법 홍포를 염원하는 제주도민들의 안타까움이 컸다"며 "이번 허가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불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3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3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7년 양력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수강료 별도)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8514-7468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